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경험

이 봉 숙

대불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Health-related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in Korea

Yih, Bong-Soo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bu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ealth-related experiences of the foreign wives. **Methods:**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to understand the health-related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Ten informants were interviewed from December 2007 to December 2009. **Results:** The health related life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were analyzed within a self development process; Choice and struggle, Change and opportunity, and Settlement and expectation. The theme of choice and struggle includes physical and emotional stress in the initial stage of marriage. The second process of change and opportunity focused on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women having power after knowledge acquisition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last theme was health and happiness from the women' perspectives. **Conclusion:** This study has emphasized the health condition of the foreign wives. Since foreign wives are members of Korean society, health care professionals need to design health services to meet their needs.

**Key Words:** Women, Immigrant, Marriage, Family caregivers, Life experience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Jung, 2007; Kim, Yoo, Lee, & Chung, 2006). 특히 농어촌 총각의 결혼 대상으로 동남아 외국인 신부의 국내 이주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은 중국(61.3%), 베트남(18.47%), 필리핀(18.4%), 그리고 일본(3.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국제결혼 대상자 중 4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정책의 일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출산, 농·어촌 인구의 감소 그리고 노인부양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과로 분석해 볼 수 있다(Kim, 2007; Yang, 2007).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출산, 양육, 그리고 노인부양에 대한 우리나라 전통적 여성 역할의 주체가 결혼이주여성으로 전환 되어 간다는 것이며, 외국인 며느리가 새로운 가족돌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돌봄의 주체는 대부분 여성이다(Yih, Kim, & Yi,

**주요어:** 여성, 이민, 결혼,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ih, Bong-Sook, Department of Nursing, Daebul University, 72 Sanho-ri, Samho-eup, Youngam 526-702, Korea.  
Tel: 82-61-469-1309, Fax: 82-61-469-1317, E-mail: yihb@db.ac.kr

- 본 연구는 2009년 대불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ebul University in 2009.

투고일 2010년 8월 6일 / 수정일 2010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6일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돌봄 행위는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역할 수행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의 주체가 어떠한 건강 관련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가족돌봄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돌봄제공자의 건강 관련 행위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제어는 심리적 갈등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Kim, Yoo, Lee & Chung, 2006; Kim, 2007; Koo, 2007).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는 문화 및 언어장벽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연계성 미비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KIHASA (2010)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71.3%가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나 단어만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구 중 과반수 이상인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는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KIHASA, 2010). 이를 종합해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타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 현실문제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내면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에서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도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망과도 원활히 연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간호학계에서 접근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Jeong 등 (2009)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82명의 연구대상자 중 56건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의료보장 문제, 교통 불편, 의사소통 그리고 동행인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의 결과는 Seol 등(2005)의 결혼이주여성의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기관 이용 실태 결과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Ahn (2008)은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조사결과 50% 이상의 대상자에게서 고혈압이 발견되었으며 그 치료적 접근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문화가정 가족돌봄의 핵심 주체인 결혼이주여성 본인은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상의 삶을 세밀히

조명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의 일상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족돌봄 행위는 무엇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고, 또 가족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켜 나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일상의 경험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의 주체자로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어떠한 자아성장의 패턴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서술묘사적 방법(descriptive exploratory method)을 통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서술 묘사적 연구방법은 특정 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연구 문제를 세밀히 다루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론이다(Brink & Wood, 1989). 특히 이 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삶의 행태 그리고 주변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줌으로써 주어진 특정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계에서는 아직 그들의 시각으로 일상의 삶을 조망해 본 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가족돌봄의 주체로 등장한 이주여성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꾸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술 묘사적 연구방법은 결혼이주여성이 주체가 된 가족돌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본다.

###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C시에 소재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7명과 연구자와 동일 거주지역 3인을 읍사무소 사회복지과의 지원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였다(일본 여성 4명, 베트남 여성 4명, 필리핀 여성 1명, 태국 여성 1명). 참여자들은 남편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으며, 연구참여자의 남편들은 운전기사 또는 일용직 노동자 등 블루칼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들의 연령은 연구참여자들의 결혼기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결혼 후 일 년 이내에 모두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에서 13년 미만으로 영어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이전에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 연구참여 동의는 물론 본 연구의 목적 및 익명성 그리고 비밀보장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전에 주지시켜 줌으로써 개인적 비밀보장의 권리를 엄격히 따르고자 했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C시에 있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매주 센터에서 교육이 끝난 후 연구참여자들의 참여의사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일회 평균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다. 7명의 인터뷰 자료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에 수집되었으며 나머지 3명의 인터뷰는 자료의 질 확보를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12월에 추가로 이루어졌다. 면담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써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하십니까?’를 기점으로 한국생활에서 경험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가족, 건강, 자녀 그리고 미래 희망 등의 주제를 촉진질문으로 사용하면서 자아와 주변 환경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성을 통해 구축해 가는 일상의 삶을 파악해 내하고자 했다.

## 3. 자료분석

인터뷰 자료들은 질적 주제내용 분석방법(qualitative content 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Brink & Wood, 1989; Cavanagh, 1997). 제1단계 분석에서는 녹음된 자료를 세밀히 필사 하였으며 자료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자료가 지닌 전반적 의미와 세부적 의미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갔다. 제 2단계에서는 각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적 주제어를 도출해 내었다. 음식, 육체적 질병

상황, 운동, 청결, 갈등, 눈물, 후회, 자아위축, 우울, 건강, 행복 등. 제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를 결혼시기별로 나눈 후 주거환경의 변화라는 공통된 경험을 중심으로 환경변화 전과 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 초기 생활을 담고 있는 주제어로 후회, 자아위축, 우울, 스트레스, 눈물, 병원, 참음, 육체적 질병 상황 등을 한 범주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선택 그리고 시련으로 최종 압축하였다. 또한 한글교육을 통한 언어습득이 자존감 회복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한글교육을 접하게 된 시점 즉 자존감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강 관련 에피소드를 따로 분류하였다. 이때 자존감, 음식, 질병예방, 한글교육, 이동성 등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변화 그리고 기회라는 주제로 묶었다. 이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 및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가고자 하는 목표설정을 마지막 주제인 정착 그리고 기대란 주제로 묶었으며 여기에는 자녀, 행복, 건강 등의 소주제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제 4단계에서는 도출된 결과들에 대해 결혼이주여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인류학자 1인과 질적 간호연구자 1인의 최종 검정 단계를 거쳤다.

##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일상의 경험을 질적 주제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선택 그리고 시련, 변화 그리고 기회, 정착 그리고 기대 등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첫째 선택 그리고 시련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결혼초기 경험하는 가정 내·외적 환경에서의 문화적 충격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었다. 변화 그리고 기회의 두 번째 주제에서는 결혼 후 시택으로부터 분가 또는 시골에서 도시로 생활 환경이 변화한 후 가족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경험하는 일상의 변화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 주제인 정착 그리고 기대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바람과 자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 1. 선택 그리고 시련

결혼이주여성이 새로운 문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가족구성원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본 주제에서는 다루고 있다. 또한 경험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생 되는 심리적, 신체적, 행위적 반응에 대한 양

Table 1. The Life Experience of Foreign Wives in Korea

Themes	Sub-themes
Choice and struggle	1. Loss of a self 2. Tears' power over the smile 3. The body of obedience
Change and opportunity	1. Lights and shadows 2. The body of movement
Settlement and expectation	1. As a name of a family 2. Like a Korean and as a Korean

상이 잃어버린 나, 웃음을 삼켜버린 눈물 그리고 복종하는 몸을 통해 표출되었다.

### 1)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나에서는 이국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한 국제결혼의 선택이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다루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심적 갈등은 가족내적 환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외적인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이방인이 되어 버린 자아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

교회(통일교) 통해서 여기나라 왔어요. 수원에 있는데 여러 사람 만나게 해줬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싫어” 했더니, 다음 남자 만나게 해 줬는데 직업도 공무원이고 혼자 있고 그래 괜찮아 그래서 그 남자 선택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공무원 아니고 시누이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고 말도 잘 못하고(지체장애인)...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시누이는 자기 남편 밥상 차려라, 자기 일 나가니 얘기 보라, 빨리 빨리 해라. 내가 하인인가, 내가 물건인가 그런 생각 했어요. 남편한테는 저 돈 주지 마라. 돈 있으면 제가 그거 가지고 태국 간다, 그러면서 돈 주지 마라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위의 예는 결혼 알선업체의 잘못된 정보제공, 언어장벽, 그리고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결혼에 대한 기대와는 동떨어진 현실을 접하게 되는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대상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나 가족구성원이 아닌 가족이란 테두리안의 이방인으로 취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닌 가사 도우미로서

의 역할 및 가치평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로인해 대상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자존감 저하 및 가치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초기 경험하는 자아의 위축과 현실에 대한 혼란은 가족내 환경에서 만이 아니라 가족외적인 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초 1~2년 안에 분만을 경험하고 있어 병원이라는 환경은 특수하면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한 공공의 장소가 된다. 따라서 가족외적 환경을 대표하는 곳 중의 하나가 병원이라 할 수 있다. 가족내적 환경과 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도구적 존재로 취급 받은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음~전 병원가기 싫어요. 외국사람 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름 보면 한국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자꾸 저 보고 웃으면서 이름 안 부르고 손짓으로 이리와 그래요. 왜 저를 보고 웃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음~난 한국병원 가기 싫어, 왜 나는 웃기는지 왜 나를 보고 웃는지... 음 그래서 병원가기 싫어요.

처음 얘기 날으려고 병원 갔는데 정말, 아픈데 애 넣고 수술 했으니까 아프잖아요. 환자를 봐 왔으니까 아픈걸 아실 텐데 엉덩이 주사 맞는데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무시됐어요. 저는 말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힘들었어요.

위의 사례들에서 대상자 자신이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받았다는 평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는 대목이다.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원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손짓 등 몸짓을 이용한 의사소통 전략이 지닌 이면과 빨리 빨리에 익숙한 한국문화에 대한 생소함 등이 문화가 다른 대상자들에게는 차별의 의미로 해석되고 오인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초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장애로 말미암아 가족 내, 외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심적 스트레스는 자아의 위축 및 가치상실로 초점이 맞춰 질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내면적 위축이 어떠한 행동반응으로 일상에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웃음을 삼켜버린 눈물

결혼 초 대상자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가족 간의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가장 가까워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화 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주제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경험한 심적 그리고 신체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대상자들이 주로 나타내는 반응은 우울이며 이로 인해 식욕상실 및 체력저하 등의 신체적 변화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고 몸은 너무 힘든데도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나오고 그랬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먹는 것도 싫고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살이 36그랬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46 정도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신의 허약은 심리적 위축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길에서 한국 사람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쳐다 보기도 두려웠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많이 울고 도망가고 싶고, 엄마한테 가고 싶고, 가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너무 후회해서 멀리 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모양이야 하고 너무 후회했어요.

## 3) 복종하는 몸

복종하는 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초 현실에 직면해 나가기 위해 취하게 되는 행동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인내와 복종은 가장 대표적인 행동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나타내는 복종성에는 낮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인

간 본연의 원초적 반응으로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순응의 일면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상대 문화에 대한 맹종의 일면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낮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모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처한 상황에 복종해야 하는 일차적 반응으로서의 복종성에 대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말 모르니까 참았어요. 무조건 참았어요. 시누이 얘기 보고 밥하고... 그리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참았어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은 한국문화에 대한 순응의 일환으로서 시부모에 대한 공경의 미로 표출된 복종성의 예이다. 결혼 초 시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우 시부모에 대한 복종은 한국문화에서는 어른에 대한 공경의 미로 대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 피력되었다. 특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논리적, 비판적 기준 보다 시부모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복종성이다.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약 받아먹는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한국) 약을 많이 안 먹지만은 그래도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약을 잘 안 먹어요. 어머니나 남편은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무조건 병원에 가라 하는데 약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잘 먹고 쉬면 낫는데 추운데 자꾸 병원 왔다 갔다 하면 더 안 낫잖아요. 감기라는 것은 예방을 해야지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닌데 무조건 병원가라 하시니... 그때는 무조건(시부모님 말씀) 따라야했죠...

마지막, 경제 원리에 입각한 상대 문화에 대한 맹종으로서의 복종성을 들 수 있다. 동남아 결혼이주여성들은 선진국 대 후진국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한국 선진기술에 대한 맹종은 자국의 전통의료요법에 대한 강한 회의감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그 세부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한국 테크놀로지 굿이에요. 저는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병원가요. 베트남에서는 감기 걸리면 무슨 약초하고 나뭇잎하고 끓여서 이불 뒤 짚어 쓰고 김을 틀어 마시면서 땀내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가서 검사받아야 해요.

위의 예는 공경의 미로 표출된 복종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기에 대한 일본여성의 의견과 상반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여성의 경우 기술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감기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고 잘 쉬고 잘 먹으면 낫는다”라는 예방적 차원의 자기관리를 중요시 하는 건강신념이 담겨 있다.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맹종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어 경제 원리에 입각한 상대 문화에 대한 복종성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나타내고 있는 복종성은 스스로를 상대적 약자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내면적 불안정성의 반응 양상이라 볼 수 있다.

## 2. 변화 그리고 기회

본 주제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은 후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생활 사건들에 초점을 두었다. 분가를 기점으로 대상자들은 한 가정의 가계를 꾸려나가고 가족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내 의사결정자로서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리적 안전망에 위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변화 되어 가는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성을 빛과 그리고 그림자, 움직이는 몸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 1) 빛과 그리고 그림자

빛과 그리고 그림자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분가를 통해 느끼는 양가감정에 초점을 두었다. 이시기 대상자들은 강력한 문화적 복종성의 한 상징인 시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인해 새로운 자아의 확장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됨과 동시에 남편과 아이에 대한 돌봄의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인해 해방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었다.

처음 시집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뭐 시키면 알아듣지 못해 하지도 못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맘대로 앉지도 못하고 애기 가져 힘든데 맘대로 눕지도 못하고 매운 음식 못 먹고 한국음식 할 줄도 모르고... 여기 시내로 나와서는 맘대로 눕고 자고 할 수 있으니 좋고, 애기들보고, 한국음식 만들고, 집안일 제가 다 해야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아, 시원해 그런 맘도 있고 아, 힘들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또한 분가는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가족돌봄의 주체자로서의 역할확대를 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즉 건강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신념에 따라 가족의 건강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질병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시내로 분가해 나오기 전 전통적 온돌 가옥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건강관리의 이점이 분가를 통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분가를 통한 득과 실의 양면성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음식을 많이 해 놓고 냉장고에 계속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식사 때마다 먹을 만큼만 만들어 먹고 있어요... 또 애들은 감기 자주 걸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이는 것 보다 평소에 비타민 섭취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식품 안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 댁은 온돌이었어요. 제가 몸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데 그때는 온돌에 누우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시내로 나와서는 아파트에 살고 보일러 값이 비싸니까 맘대로 못 올리잖아요(온도)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몸이 돌아간 것 같아요...

### 2) 움직이는 몸

외진 농촌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경험한 이동에 대한 제한은 분가를 기점으로 이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아발전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에 살 때는 버스도 하루에 한 두대 정도지만 한글을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고 싶어도 힘들었어요... 한글 배우고부터 수원에 언니가 사는데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데 맘대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센터) 나오고부터 한글도 배우고 컴퓨터, 한국음식도 배웠어요. 우리 애기 읽어줄 이야기 책도 여기 나오는 다른 나라 사

람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보세요 여러 나라 말이 다 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태국)말로 쓴 거예요(동화책).

또한 대상자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취업을 통해 가계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지는 미안함이 자랑스러운 엄마라는 위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자존감의 회복과 함께 스스로 일상에서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음이 피력되었다.

저는 실업계고등학교 시간제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말 잘 몰라 우리 아이들 한테 면목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이들한테 ‘엄마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사람이다.’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두 개 나라 말도 할 줄 아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애들한테 말해줘요.

지금 제가 우리 동네 결혼이민자여성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 시간제 강사도 하고 있고 교회일도 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무 바빠요... 힘들지만 저는 행복하고 좋아요... 저처럼 밖에 일 안 하고 안에서 애기만 키우는 이민자들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트에서 사먹고 스트레스 쌓이면 노래방 가서 풀고 하는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지지체계와 연계망을 통해 이동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3. 정착 그리고 기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하게 되면서 점차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가족의 핵심 주체로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상을 형상화하고 있어 이를 정착 그리고 기대에서 다루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실천해가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남편에 대한 바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와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가미되고 있어 이를 품어 안은 나의 가족, 한국인 처럼 그리고 한국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 1) 품어 안은 나의 가족

품어 안은 나의 가족은 결혼에 대한 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실망감과 후회로 시작한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타문화속에서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각 대상자들의 노력을 담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는 사회적 지지망과 연계되면서 언어 및 문화교육으로 인해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는 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차 자신이 이국 땅에서 가꿔 가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 아이가 행복의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남편이 가계경제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가계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나 대상자가 부업을 해야만 하는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 심리적 측면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내린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로 안 싸우고 건강만 하면 우리가족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 안 싸우고, 엄마 아빠 행복해하면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아이가 행복해 하면 저도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보다 이제는 한국말 더 잘하고 아이가 의지가 많이 돼요. 신랑은 그냥 건강만 해주면 돼요.

위의 사례는 아이가 대상자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이 되고 있으며 남편은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만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내리고 있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깨끗한 가정환경과 건강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처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임을 내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여기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깨끗해야 하고 설거지, 청소 잘 해야 해요. 남편이 잘해주시 좋아요. 행복해요... 베트남에서 공장 다닐 때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아파트 안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잘해

주고 우리집 깨끗하게 하고... 음... 운동 열심히 하면 그게 잘사는 거라 생각해요...

반면 남편이 일용직 노무자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상자가 부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중심에는 남편 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상자 자신의 내면적 의지가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임을 피력하고 있다.

...남편이 변화되기관 어렵잖아요. 그러니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해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잘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 2) 한국인처럼 그리고 한국인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현실에 대한 수용과 함께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한국인처럼 그리고 한국인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인이 아닌 이주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해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전문 직업을 가지고 당당히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상자의 2세가 혼혈아 이지만 진정한 한국인으로 당당히 한국사회에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 먼저 한국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는 다음과 같다.

한국말만 잘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영어 잘해 좋겠네' 그러지만 저는 한국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쓰는게 어려워요... 우리 애들 다니는 초등학교 시간제로 선생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숙대에서 TESOL 과정 다니고 있어요.

일본에서 국문학(일본문학) 전공했는데 4년제 대학이 아니라서 전일제 교사가 될 수 없네요. 그래서 올해 방통대(방송통신대) 입학했어요. 학교선생님은 다들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은 시간제 교사지만 열심히 해서 학교선생님 하고 싶어요.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진정한 한국인의 상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녀이지만 혼혈아라는 차이성이 존재하므로 이주여성의 내면에는 자녀가 한국인이지만 다른 한국인 이라는 잣대가 작용하고 있었

다. 따라서 자녀의 피부, 외형 등이 자녀의 또래 집단과 동질성을 보이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는 한국인과의 외형적 동질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우리아이는 뚱뚱해요. 제가 바빠서 잘 못 챙겨줘요. 햄버거, 파스타, 브레드, 밥 이런거 다 막 비벼서 먹고 그러니 체중이 많아 나가요. 살 빠지면 예쁜데... 또래 아이들처럼 슬림했으면 좋겠어요. 다행인 것은 아빠 닮아서 얼굴도 희고 그래요, 저 안 닮았어요. 엄마모습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한국사람이예요..

위의 사례에서는 대상자 자신과 다른 한국인의 외형을 지닌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는 아이리니하게도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는 심리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즉 자녀의 성공을 자신에 삶에 대한 성공과 일직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의 존재는 이국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자신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한 것이다.

저는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외국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전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훌륭한 사람의 엄마인 거잖아요.

##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을 통해 그들이 낯선 문화와 소통해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초 한국사회에서는 타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Koo, 2007). 그들은 대부분 언어나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한국이란 사회로 이주해 오는 경향이 강하다(Kwack & Kim, 2009). 이로 인해 결혼초기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은 갈등과 시련으로 점착되고 있다. 낯선 문화이기에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에 대한 반응으로 자존감 저하, 자국문화에 대한 가치상실 그리고 우울 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Ahn, 2008; Han, 2006; Koo, 2007)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적 반응 양상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결혼 초 정체성 혼란기에 나타나는 복종성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복종성의 기제는 자존감저하 및 자국문화에 대한 가치상실에서 오는 문화사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이 나타내는 복종적 행위는 낮은 문화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한 생존 수단의 한 방편임은 틀림이 없다. Koo (2007)의 연구에서도 이를 살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 관련 신념이나 행위에 있어서 자국의 전통 의료요법을 폄하하고 건강신념에 입각한 예방적 측면보다 약에 의존하며 선진 의료기술에 대한 맹종을 보이는 행태는 자존감저하 및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자국문화의 가치상실에서 오는 문화사대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 의료방법이 한 문화의 단면이며 자국의 정신문화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pector, 2004).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존감 저하와 가치 상실은 그들이 가정 내·외적 환경에서 도구적 존재로만 다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인식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언어장벽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원활한 감정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기본패턴은 행위나 목적 중심의 지시적이고 권위적 대화 패턴이 주가 된다(Yi & Yih, 2006). 본 연구에서도 결혼 초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패턴은 역할지시와 그 지시에 따른 복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시와 복종의 행위패턴은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를 도구적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은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언어는 고도의 사회적 상징체이다(Lee, Lee, & Kim, 2006).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더라도 언어는 다양한 의미체로 인식될 수 있다. 하물며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달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손짓, 웃음 등)이 비인격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병원이란 환경은 명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원활한 소통의 통로가 부재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오히려 전달자의 의사와는 달리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Lee et al., 2006). 따라서 의료 환경에서는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의료통역사의 필요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급함을 암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번째, 앎을 통한 인간행위 및 자아인식의 전환점을 변화 그리고 기회라는 두 번째 주제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의 습득은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Goldberger, Tarule, Clinchy와 Belenky (1996) 등이 지적한 앎과 힘과의 관계성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즉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습득은 가정내 돌봄 책임자로서 가족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글을 습득하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성의 확보는 위축된 자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생활 변화의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 즉 가정 내에서 갖는 스트레스를 외부와의 원활한 접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Jung (2007)이 언급한 자율성의 확보가 자아확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부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언어의 습득은 개인과 사회를 소통시켜주는 통로가 되었음은 물론 내면에 위축된 자아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변화와 시도를 통한 자신감 회복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란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 대한 목적의식의 형성으로 보고 있다. Ahn (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에 살면서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예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목표설정은 희망과 자존감의 회복을 의미(Koo, 2007)하며 이는 내면적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 삶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와 민족이 다른 낮은 미국땅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Dyck과 Dossa (2007)는 이민자의 욕구 중 가장 강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자녀에게서 찾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

존재감 확립이 개인차원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경우 소속사회와 근원적인 연계성을 띠고 있는 중계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중계자는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남아의 출산을 통해 가정 내 지위를 확보했던 한국 유교전통사회에서 모-아관계의 한 일면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Lee, 1982).

근대 한국여성들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한 단면으로 나타났던 남편의 성공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존재가 비교적 미약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KIHASA, 2010)에서도 보고되고 있듯 결혼이민자의 한국 배우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임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남편보다 자녀는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속에 나타난 다양한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 자아가 성장해 가는 일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자아발전과정의 근간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을 기준점으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 되어 갔는지를 선택 그리고 시련, 변화 그리고 기회, 정착 그리고 기대 등 3 가지 주제를 통해 다루었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도출된 의미들은 자아라는 구심점을 축으로 개인이 가족 그리고 사회와 소통되어 가는 일면을 다루었다. 그 소통의 근간은 얇 즉 소속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언어와 문화)의 습득이 주가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위축된 자아가 확장 되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각자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가족돌봄을 수행해 가는 행위주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즉 건강한 자아가 확립되어갈 수록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이 완화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고자 하는 책임감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이 강화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골에서 도시로 생활환경이 바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도시 지역 및 농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글 습득여부가 한국생활에서의 적응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는 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방문한글교육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은 신체·정신적 측면은 물론 의료이용에 있어서 그 요구도가 높은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자 중심의 방문 상담서비스의 활성화가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도서 및 농촌 지역 거주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 REFERENCES

- Ahn, Y. H. (2008).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2), 200-210
- Brink, P. J., & Wood, M. J. (1989). *Advanced design in nursing research*. London: Sage.
- Cavanagh, S. (1997). Content analysis: Contents, methods and applications: Qualitative data analysis. *Nursing Research*, 4(3), 5-16.
- Dyck, I., & Dossa, P. (2007). Places, health and home: Gender and mig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healthy space. *Health & Place*, 13, 691-701.
- Goldberger, N. R., Tarule, J. M., Clinchy, B. M., & Belenky, M. F. (1996). *Knowledge, difference, and power: Essays inspired by women's ways of knowing*. New York, NY: Basic Book: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Sociocultural Anthropology*, 39(1), 195-219.
- Jeong, G. H., Koh, H. J., Kim, K. S., Kim, S. H., Kim, J. H., Park, H. S., et al. (2009).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261-269.
- Jung, H. (2007). The spatial entrapment of women? On mobility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Journal of Korean City Geographic*, 10(2), 53-68.
- Kwack, B. S., & Kim, H. S. (2009). The study of the plans to assistant multicultural families's adaptation to their communities-Focused on Kunsan of Heonbuk, Korea.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8(2), 1-22.
- Kim, H. H. (2007). Study on the circumstances and present situation of immi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Korea Journal of Folklore Study*, 30, 6-15.
- Kim, M., Yoo, M., Lee, H. K., & Chung, K. (2006). Being Korean

- wives: Dilemas and choice of Vietnamese and Filipino migrants. *Anthropology*, 39(1), 159-193.
- Koo, C. S. (2007).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1-8.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The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policy issues. *Health and Welfare Issue and Focus*, 26(9), 1-8.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The results of statistics of marriage in 2007*. Retrieved March 26, 2008, from <http://www.nso.go.kr>
- Lee, B. Y. (1982). Korean culture and mental health: In comparison with Western culture. In S. Y. Chun (Eds.), *Customs and manner in Korea*. Seoul: The Si-Sa-Young-O-Sa.
- Lee, K. S., Lee, M. K., & Kim, K. H. (2006). *Human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oul: Hyunmunsa.
- Seol, D. H., Kim, H. S., Yoon, H. S., Lee, H. K., Yim, K. T., Chung, K. S., et al.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pector, R. E. (2004). *Cultural diversity in health and illness*. Pearson Prentice Hall, Chestnut Hill, MA.
- Yang, J. H. (2007). Representation of migrating women: News depiction of inter- racially married Asian Women to Korean men. *Media, Gender & Culture*, 7, 47-77.
- Yih, B. S., Kim, C. M., & Yi, M. (2004). Women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A feminist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881-890.
- Yi, M., & Yih, B. S. (2006). A conversation analysis of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with Dementia and their profession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7), 1265-1273.